

台灣의 亞熱帶農業

朴孝根

서울대학교 農科大學

要 旨

臺灣은 東支那海上 北緯 21° - 25° 에 位置한 3.6 萬^여의 小島이며 全國土의 70 %인 山岳地帶은 東쪽에 편재하여 있고 西南部地帶은 平野地帶이며, 全人口 1,800 萬中에 약 80 %가 이 西海岸平野地帶에 密集하여 있다. 氣候는, 南部는 熱帶圈에 屬하며 中部以北은 典型的인 亞熱帶氣候圈에 속한다. 1979 年의 農業人口는 90 萬戶의 564 萬名으로 全人口의 32 %로서 1952 年의 52 %에 比하여 全人口에 對한 比率은 減少하고 있으나 農業에 종사하는 絕對人口數는 安定的이다. 耕地面積은 92 萬町으로 戶當 耕地面積은 우리와 비슷한 1.02 町에 不過하며 農民의 85 %가 自營이며 7 %가 部分自營이고 8 %가 小作農이나 농업고용원으로서 臺灣農業의 特徵은 小規模自營家計農이며 勞動集約의이다. 農業이 全體產業에 차지하는 比重은 1952 年의 36 %에서 1979 年에는 11 %에 不過하다. 그러나 農業生産性은 지난 30 年間 年 2.9 ~ 4.8 % 增加하여 착실한 成長을 하여왔다. 二次大戰後 많은 나라가 農業政策에 失敗하였으나 臺灣은 가장 成功한 例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1949 年 以前의 中國 本土에서의 그들의 失敗을 감안한다면 지난 30 年間의 그들의 發展은 괄목할 만한 것이다. 筆者가 1974 年부터 6 年餘 臺灣에 居住하면서 관찰한 그들의 農業發展의 主 原因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서 自然氣候條件이 年中 耕作이 可能한 亞熱帶氣候임으로 多樣한 作付體系를 發展시킬 수 있어서 勞動力의 年中均等한 活用과 土地生産性을 極大化할 수 있었다. 但, 土地利用率을 나타내는 作付系數는 1965 年의 100 %를 最高로 점차 下向하여 1979 年에는 163 % 水準인데 勞動力 不足에 基因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둘째로서 國民性을 들지 않을수 없다. 農民은 대단히 근면하며, 一般國民은 정직하고 우리와 비교해 虛禮虛式이 훨씬 덜하며 合理的인 經濟觀念을 갖고 있다. 특히 中國人들의 料理에 關한 關心은 대단하며 結果的으로 農產物購入에 많은 家計를 支出하며 農產物에 對한 需要가 대단히 높다.

2 亞熱帶農業研究

세번째로서 中國國民黨政府가 臺灣으로 쫓겨온 以後에 一聯의 成功的인 農業政策이 면밀한 研究끝에 長期的으로 安定的으로 執行되었다. 옛 地主를 몰락시키지 않고 시행된 土地改革, 美國의 원조를 農村復興에 적절히 活用할 수 있었던 制度的 장치로서의 JCR의 成功的인 運營, 農民의 眞正한 利益을 대변할 수 있었던 農會의 改革과 活性的運營, 地方分權的인 農事試驗研究事業, 小數정에 農科大學教育 等이다.

口號의 政治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도면밀한 사전조사와 연구, 長期政策의 樹立, 이의 융통성 있는 집행 등에 이루어진 값진 結果라 생각하며 우리가 그들로부터 본받아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